

제 220 호

연증 제5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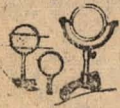
1977. 2. 6.

# 숲 정 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상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강론 □



## 아침바다 갈매기는 금빛을 신고...

한 기 호 신부

어부였던 베드로와 몇몇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온갖 수고를 다 했지만 단 한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깊은데로 저어가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다. 직업적으로 어부노릇을 오랫동안 해온 베드로가 고기가 어느 부근에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을 것이고 또 고기잡을 줄 모르는 바 아니었을텐데 전혀 다른분이 나타나서 깊은데로 가 그물을 치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약올리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베드로는 "밤새도록 애써보았지만 한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다"고 겸손되어 그분의 명을 수락했다. 과연 그분의 분부대로 따른 결과 기적적으로 많은 고기를 못하지 아니하게 잡을 수 있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획이 불가능했던 곳에서 이토록 많은 고기가 뜻하지 아니하게 잡힌 것을 보고 놀란 베드로는 확실히 그분이 초자연적인 힘을 드러내는 그 어떤 분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이제부터 "당신을 사람잡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압도적으로 도취되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분을 따라 나섰던 것이다.

보잘것 없는 한 어부 베드로를 위해 주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교회의 최고 복자로 삼으시어 당신영광을 드러내심을 볼 때 주님의 섭리는 놀랄만 하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가지 사실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다"고 한 베드로의 겸손된 행위이다. 이 겸손된 행위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겸손된 행위에 주님께서는 그의 두려움을 당신의 은총으로 없애주었던 것이다.

이제 베드로의 사람잡는 고기잡이 배는 세계역사의 바다를 향해 그 출범을 내딛었고 2천년을 향해해 왔다. 사도 베드로의 사람잡는 고기잡이 배는 75년 1월1일 현재 7억5백2만8천의 어획고를 올렸다. 실로 놀라운 숫자이나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황금어장속에 묻혀있는 고기들이 너무도 많다.

사람잡는 어부 노릇은 주교 사제들의 것만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인은 모두 성세와 건진성사를 통해 주님을 따르라는 소명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을 드리기 위해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우리 자신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이러한 신앙의 체험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에 전해주는 일일 것이다.

(전동 보좌신부)



## 신용협동조합

1960년 한국에 도입된 신용협동조합 운동은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의 공포로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오늘날까지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간 실험을 늘직한 은행문턱을 넘지 못하던 많은 분들에게 쉼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어려움을 이겨냈고, 또 협동하고 저축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도 체험했다.

한 외국 수녀가 도입해온 이 운동이 처음에는 성당의 조그마한 한 모퉁이에서, 또는 사랑방에서 시작했다가 이제는 필요에 따라 넓은 사무실도 갖게 되었다. 자금도 불어나게 되었다. 직원의 숫자도 늘게 되었다.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운동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얼마나 장한 일인가?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매일수룩 다시 한번 실험의 모습을 살려 보아야 한다. 마침 정기총회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실험은 정말로 「만인은 일인을 위하고, 일인은 만인을 위한」 실험의 구실을 다해내고 있는가?

혹시라도 실험이 은행으로서의 구실만을 해내고 있지는 않는가? 실험이 조합원에게 저축과 대부의 서비스를 제공 해주는 것만이 그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과반수가 꼭 민주적이라고 착각하는 잘못은 범하고 있지 않은가?

탄자니아의 한 농부의 말을 들어보자. -「이제야 우리는 샵터에 도달하였다. 우리들 가난한 사람들은 빌린 돈을 늘 두배로 갚아왔다. 너무나 목이 타서 그러한 조건을 수락할 수 밖에 없었다. 마야호로 이 땅에 샵터가 나타났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빌려 쓴다는 것은 합당한 비용을 내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물을 마시는 것이 된다. 이러한 기회가 온것을 우리는 감사해야하며 잘 활용해야 한다.」

## 숲 정 이 산책



하느님은  
성가를  
좋아하십니다.





# 人 間 의 존 엄 과 교 회 (3)

지 . 학 순 주 교

## 4. 교회(敎會)의 사명(使命)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해방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여 하느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려 하는 것입니다. 인간해방의 제1차적 장애요인이 인권유린이며 인간 존엄성의 파괴입니다. 인간해방은 곧 인간존엄성의 현세적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너희는 여기있는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라 하셨습니다. 제3세계 18명의 주교들은 제3세계 국민들에게 보내는 팻시지에서 “낮은 사람을 들어 높이고, 거만한 자들을 내 쫓으며, 굶주리는 자들을 먹이고, 권세 있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힘이 종교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제3차 세계주교대의원대회에서 밝힌대로 “불의에 의해 소외되어 희생되는 자들을 위해서 외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형제, 가장 보잘것 없는 형제와의 만남이 곧 주님과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자기 형제를 위해서 산다는 이 믿음이야말로 그 형제가 가난하고 보잘것 없으면 없을수록 그리스도인의 현세적 신앙투신(信仰投身)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현세의 불의를 타파하고 보다 자유롭고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며, 지금 탄압받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 운명의 주인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도 옥중에서 신앙적 실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신부님들이 그러하며 김대중씨와 김지하씨만이 아니라 이문영 교수 등 지식인이, 또한 많은 학생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노력에 대하여 당국은 기독교를 공산주의와 같은 것으로 보려하고 있습니다.

악(惡)에 찬 사람이 선(善)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공산주의적인 것이라는 말은 김지하가 양심선언에서 표현한대로 “뜨거운 얼음”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독교가 반공의 제일선에 서왔음은 세계사와 민족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자, 가난한자, 억압받는자 편에 서는 것은 공산주의의 침투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비양심적이며, 몰상식한자라고 야니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하에 대한 재판과 성경차입금지사건(聖經差入禁止事件), 현재도 나돌고 있는 “한국기독교의 이해”와 “한국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책, 그리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박형규 목사의 사건들은 교회의 앞날을 불길한 예감으로 뒤덮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우리는 신구교회가 다같이 “사랑의 연합”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 5. 나의 제안(提案)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한국의 인권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남달한 마

음에서 나온 애처러운 희망인줄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권문제는 사실상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하느님이외에 다른사람들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민중이 민중자신의 운명의 주인공이 될 때, 그 사회의 인권은 비로소 회복되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신구교회의 사랑의 연합을 나는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인권장전(人權章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다 같이 추구하고 도달하여야 될 크리스찬의 인권회복의 길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는 각기 충분한 협의의 과정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우리의 그간의 노력을 이 인권장전에서 집약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신구교회에는 각기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활동이 개별적이고 비조직적이며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인권문제는 대량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 교회의 일치되고 통일적인 인권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나는 봅니다.

이 인권위원회는 교회전문가와 법률 및 근로조건전문가로서 구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나는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밀발침할 “크리스찬인권기금”의 설치가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권 유린에 대한 교회의 제도적 대처와 효과적 대처를 위하여 이와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권을 향상시키는데는 복음이 필요하고 인권의 향상이 성직의 핵심이라고 교회는 확신하기 때문에 민중에게 희망을 주는 팻시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전파하고 이 팻시지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소망과 일치한다는 것을 다같이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팻시지가 인간의 발전을 위하여 빛과 생명과 자유를 쏟아줄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마음 가져야 할 것은 낙관보다는 새로운 각오입니다. 암흑속에 햇불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고난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를 닮아 이기고 넘어가 새롭게 부활해야 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거듭 생각해야 할 것은 베들레헴 어느 산골 외양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끝으로 나는 오늘의 이 모임이 그동안 활발히 움직여 온 정의구현사제단에 이어서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와 모든 역경을 딛고 일해온 평신도사도지침회의회에 의해서 새로이 마련되었음에 대하여 커다란 감동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인권문제는 신구교회를 초월하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막론하고 우리 크리스찬교회의 직접적인 공동관심사로 된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깨우쳐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본 원고는 1976. 12. 13. 명동성당에서 강론하신 내용의 유인물을 옮겼음)



□ 양지쪽 □



# 성 명 서

## 사실 규명하여 농민피해 보상하라!

「비료도입 가격조작」 「진국이래 최대 40억원 외화유출」 「농민 울린 비료 폭리」 「40억 원 농민의 피담삼켜」 등등의 제하로 12월 24일 진주한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면 비료도입 가격조작과 독점 공급으로 농민의 고향을 빨아 치부를 하고 탄세와 부정의화 유출로 국가사회를 혼란시킨 관련자의 검거에서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더우기 농민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일하는 농협이 비료공급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농민의 피담을 감취하는 범죄자의 동조자가 되었음을 슬프게 생각한다.

식량자급을 위해 증산을 장려하는 농수산부가 이와같은 농민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베 이웃을 베 곱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따라 농촌사회에 하느님의 진리와 정의의 구현에 노력하는 본회는 차체에 관계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① 피해 당사자인 농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위 사건을 철저히 규명할 것.
- ② 비료가격 조작에 의한 농민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할 것.
- ③ 농민의 고향로 치부를 한 범인과 관련자를 엄중 처단할 것.

1977년 12월 30일 한국 가톨릭 농민회

## <제9차 전주교구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회>

「여러분은 다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다음과 같은 직책을 두셨습니다. 첫째는 사도이고, 둘째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며, 셋째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고린토 전서 12, 27-28)

예수께서는 여러 혼란으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다가 열 두 제자를 불러 「더러운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들씩 짚지어 파견하셨다. (마르코 6:7-8) 오늘날 신자들, 특히 젊은이들은 소속 본당이나 공소에서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가를 지도하고, 같이 재미있게 놀아준다. 어린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만나게 해 주고, 산 신앙생활을 모범으로 보여주기를 마냥 보람된 활동이다. 그러나, 완전한 교리교사는—예수님 외엔—없다. 것처럼 어렵고 힘들기만 한 직책이다. 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교리교사들은 할 바를 배우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이제 주일학교 교리교사직을 맡을 젊은이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든 교리교사가 모여서 연수할 기회가 마련됐다. (침식 제공 숲정이 공지 사항 참조 바람)

## 요심이 (184) 김명오



**숲정이 광고주 여러분!**  
발전을 위해서 부득이 선금(先金) 광고만을 취급합니다. 양찰 하시고 계속 협조해 주세요. 지면 관계로 한국 流 온수 온돌(범창규) 최씨판집 광고가 빠졌습니다.

원아모집, 원아모집, 원아모집  
자격: 만 5세~만 6세 어린이  
**성체유치원**  
주소: 전주시 중노송동 성체수녀원 내  
전화: ③8408, ③2321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외 교우집으로!  
**미성당 시계점**  
장금태(방지거)  
전화 ③3301 (자택 ③8548)

**\* 원아 모집 \***  
자격: 만 5세~6세 어린이  
기간: 1월 27일~2월 27일  
**성모유치원**  
주소: 전주 중앙 성당 내  
전화: ③6669, ③3874번

교우 여러분의 성원속에 자라온 한국온수는 적은 자원으로 자립하고자 하시는 분을 구합니다. 전주지구 3, 군산지구 2, 이리지구 1, 진안, 장수, 무주, 순창 지방, 각 1개소 위와같이 대리점을 증설코저 하오니 아래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 65-16(전화4940)  
한동암(모이세)

OSTAR 미사·전자장판 네아 전기 전복메리점  
진주 전자 약탕기 전주 메리점  
**광신전업사**  
박상기(안드레아)  
전주시 중앙동 3가16<한일관 앞> 전화 2-4753  
□각종 조명기구, 석유 연소기구, 가정용 전자기구□





1.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7일 오후 7시 반, 가톨릭 센터)
2. 가톨릭 농민회 정기총회(7일 오후 2시-8일, 가톨릭 센터)
3. 신학생 학부형 공동체 목상회(10일 오후 2시-12일, 가톨릭 센터)
4.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회(본당·공소 합동, 20일 오후 2시-24일, 가톨릭 센터)  
2월 10까지 접수된 신청순 150명이 연수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5. 중·고등 학생 교리 경시대회(20일 오후 2시, 각 본당에서)  
범위: 마르코 복음, 교리서 3, 4편, 기도문
6. 금주의 방송 안내(서해방송, 매일 밤 11시 35분, 「사색의 오솔길」 김동준 신부 방송)
7. 숲정이 광고 안내... 앞으로는 전달된 광고만 게재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협조를 빕니다.
8. 전주지구 울드레아(12일 오후 7시 반, 가톨릭 센터, 회비 500원) 신 푸르실리스타 환영
9. 4지구 교리교사 연합회 임원개선(7차): 회장-박 바오로(동석), 부회장-이 프란치스코(범수), 박 헤레나(혜순)
10. 삼관성당 전화 개통 (상관79번)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사도회 월례회: 6일 공식 미사 후, 사제관에서
2. 방지거 3회 월례회: 6일 오후 2시 반, 강당에서
3. 중앙신용조합 정기총회: 6일 오후 1시 반, 성당에서
4. 성모 유치원 원아모집: 신청순 80명, 2월 27일까지
5. 교적 정리: 교구청 행정구역에 의한 소속 본당으로 옮깁시다.
6. 모든 신자는 적성에 따라 신심단체에 가입 합니다.
7. 예비자 안내: 등록-6~19일, 교리-20일 공식 미사 후
8. 중·고등생 교리: 경시대회대비, 7일부터 매일 7시 반
9. 구정 합동 위령미사: 17일까지 사무실에 접수바람
10. 주일 봉헌금: 101,297원, 감사합니다.

(노충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희용  
사도 회장 박종용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 후,  
사도회 임원 및 구역장님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2. 신용조합 정기총회: 차주(13일) 공식 미사 후  
임원 개편 있으니 조합원 전원 참석하세요.
3. 병자방문 및 봉성체: 9일(수) 오후  
해당 가정은 본당 신부님께 미리 알려 주세요.
4. 활도마 수사님 감사합니다: 2달 동안이나 수고 하신  
수사님의 수련이 시작되오니 많은 기도 바랍니다.
5. 구라주일 봉헌금: 54,145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사도회 확대회의: 공식 미사 후, 상임위원, 구역장  
공소회장, 단장님 전원 참석 바람
2. 신용조합 정기총회: 9일 오후 7시, 성당에서  
조합원 전원 참석 바람
3. 어린이 세례식: 7일 어머니 미사 후(11시)
4. 예비자 교리: 어머니-(월) 어머니 미사 후,  
(금) 오후 4시, 직장인·학생-(토) 저녁 미사 후,  
(일) 저녁 미사 후
5. 구정 합동미사: 저녁 7시
6. 주일학교 개학: 12일(토) 오후 3시,  
◎부모님 협조 바람
7. 주일학교 졸업식: 13일 오후 1시, (6년 교리반 어린  
이)
8. 신축련금: 15,000원(이정남), 총계 5,583,500원
9. 주일 봉헌금: 48,47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 후
2.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 미사 후
3. 축하합니다: 복자 신용조합 제2대 이사장 양 규철씨  
조합원 통장 제출 바람-매당 있음
4. 중·고등 학생 회장단: 회장-황 선주(프란치스코),  
부회장-박 주현(요한), 공 순애(모니카)
5. 건진 신청자 접수: 28일까지, 영세한 본당에서  
세례 증명서 1통씩 해운 것)
6. 시간이 없어 예비자 교리를 못 받으시는분께 통신교  
리를 권합니다.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16호 교리  
농신부)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사도회 월례회: 10시 미사 후
2. 예비자 교리: 10시 미사 후
3. 중·고등 특별교리: 매일 저녁 8~9시(교리경시 대회  
대비) 강사-김성진 학사님
4. 반 회합: 1반(8일), 2반(9일), 3반(10일),  
4반(11일)

(숲정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 후, 사도회 임원,  
회장단, 구역장님 꼭 참석바람
2. 중·고등 학생 정기총회: 13일 공식 미사후, 사제관  
(학생회장 선거 및 임원 선출)
3. 중·고등 학생 특별교리: 2일부커 실시하고 있으니  
꼭 참석하여 지식을 쌓읍시다. (매일 오후 7시반)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한길  
보좌 신부 김윤석  
보좌 신부 김유석  
사도 회장

- ※ 뽕 영화: 마더 테레사-오늘, 내일 밤
1. 사도회: 오늘 저녁 미사 후
  2. 성화회: 오늘 공식 미사 후
  3. 유아 세례: 오늘 2시 미사 후
  4. 중·고등 특별교리: 7일부터 매일 저녁(2주간)  
정기총회: 오늘 9시 미사 후
  5. <구정> 이웃돕기: 26세대 선정(동 반장 회의)
  6. 첫 영성체 사진: 사무실에서 찾아가시오
  7. 부활 영세자 교리: 주일, 수요일, 금요일
  8. 주일 봉헌금: 116,850원